

트럼프 2.0시대의 통상·산업정책 연속경청간담회

경제는 민주당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중소·중견기업**

트럼프 2.0시대의 통상·산업정책 연속경청간담회

경제는 민주당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중소·중견기업**

일시 | **1월 24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의실(306호)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중소기업

표지면지

표지와 동일하게 흑백으로 들어갑니다.

목 차

환영사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3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5

축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13

발제문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15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31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45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47
김병욱 (전 국회의원)	49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_중소중견기업

환영사



환영사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벌써 1월 말이 다가오는 2025년은 어느 해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관세맨(tariff man)’이라 칭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현지 시각) 취임했습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보편 관세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이제 다가올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출이 국내 총생산의 약 36%를 차지하고 이 중 38%가 대미·중 수출인 수출국 대한민국의 트럼프 2.0 시대 도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살아갈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경제는 민주당,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중소중견기업” 토론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트럼프 2.0 시대를 살아갈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고민을 듣는 자리입니다. 트럼프 2.0 행정부는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2.0 행정부의 보편 관세 도입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세계 무역 질서는 빠르게 개편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수출량이 많고 대중국 중간재 의존도가 높으며 내수 경기에 민감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2025년은 불확실성의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트럼프 2.0 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고민을 듣고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국회, 기업의 역할도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민주연구원과 함께 오늘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좌장까지 맡아주신 홍성국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자로 나서주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님,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님,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님, 김병욱 전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체 기업 고용에서 중소기업은 약 80%, 중견기업은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한국의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경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은 한국 경제에서 미래 혁신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노력 없이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든든한 허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민주연구원은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이 트럼프 2.0 시대에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홍성국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홍성국입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작부터 전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경선 때부터 공언했던 파리기후협약 탈퇴, 출생시민권 폐지 등을 바로 단행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 보편관세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미루기는 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2월 1일에 할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경제 분야의 조치가 이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데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격경쟁력보다는 기술경쟁력에서 우위를 통해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의 약화는 바로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기업 또는 수출기업의 협력기업들은 보편관세를 비롯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장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시장에 수출하기 어려운 중국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또는 한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과 보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신장비, 네트워크 산업은 중국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상당히 장악했고 국내 기업들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입장이 다른 집단들 사이에 타협을 하고 협력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위기 국면에서 기업과 정치는 함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불필요한 정보 비용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은 많은 국민들의 일터입니다.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이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내고 보다 단단해질 거라고 믿고 응원합니다. 민주당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_중소중견기업

축 사



축 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트럼프 2.0시대의 통상산업정책 경청간담회〉 연속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민주연구원과 당의 경제 부분 특별위원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태년, 한정애, 이연주 의원님과 홍성국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7년 연속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의 경제·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보편적 관세’가 실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보편과세를 10%로 적용할 때 우리 중소기업의 대미수출은 12.6%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99.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증폭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 전략과 산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수출산업의 명운이 달려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한 주요수출 분야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겠습니다. 현장의 말씀을 반영한 정책으로 우리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24.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재영**

축 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경제는 민주당,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중소·중견 기업〉 간담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시의적절한 통상·산업정책 경청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님,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경제 구조 위기와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더해, 12·3 내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에 대비한 경제·외교적 대응마저 늦어지고 있어,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걱정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며 관세청 설립 및 보편 관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막대한 수출 피해가 예상됩니다.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편 관세 20% 적용 시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은 최대 21.6%까지 줄고 생산은 최대 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트럼프 취임으로 고환율이 계속되고 미-중 경쟁이 격화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이 원자재 수입 부담은 커지고 가격 경쟁력은 중국에 밀리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큼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이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까지 세심하게 이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산업의 뿌리인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제시되는 기업, 학계, 여러분의 고견이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소·중견 기업 분야 전략의 현명한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입니다.

윤석열 내란사태로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선 가운데,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큼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주신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에 감사드립니다.

수출 중소기업들도 트럼프 2기 출범에 여러 불안감이 크다고 압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76.4%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와 ‘고강도 관세정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특히 작년과 트럼프 1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과 비교하면, 대미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는 각각 70%, 334%가 증가했습니다. 수출 증대가 오히려 고관세 확대 등으로 이어져 수출에 타격을 주진 않을지 우리 기업들의 걱정이 큼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내수 관련 거시경제 지표가 트리플 감소로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고용마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미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의 경쟁력마저 흔들린다면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우려됩니다.

더구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과잉생산 저가상품이 국내와 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돼 국내 시장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도 걱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더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민주당 정책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진성준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_중소중견기업

발제 1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소기업 정책환경 및 대응전략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KBIZ 중소기업중앙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소기업 정책환경 및 대응전략

1

목차

- I. 2025 세계경제 전망
- II.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
- III.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과 대응전략

2

I. 2025 세계경제 전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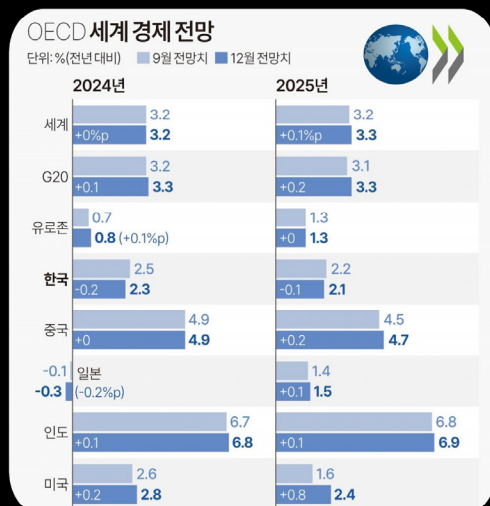
I -1). 세계경제 성장률



보호무역 확산 기조에도
“세계 경제 성장률 3%대 유지”

- 유로존 소폭 상승
- 미국·중국 소폭 하락

" 韓 정부는 올해 한국 성장률 1.8% 예상 "



4

I -2).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20)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추진

- 글로벌 리더 → 힘센 협상 상대국

중국 견제를 위한 통상 정책 및 공급망 재편

- 4자·1고(저금리 / 저물가 / 감세 / 약달러 / 고율관세)

5

I -2).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20)



외교

- (안보) 고립주의, 동맹국 방위비 증액
- (전쟁) 러·우 전쟁 종결, 중동분쟁 이스라엘 지지
- (대북) 북한 관계 개선 및 협상의지



통상

- (무역) 양자 협상, 상호성 원칙 기반 규제 강화
- (관세) 중국 60%, 보편관세 10~20%, 품목관세
- (대중) 공급망에서 중국 분리, 최혜국 대우 철폐

6

I -2).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20)



경제

- (기업) 미국내 제조업 법인세 인하 (21% → 15%)
- (통화) 연준 기준금리 결정 개입
- (공급망) 온쇼어링
- (이민) 불법이민 근절
- (보조금) IRA 인센티브 축소



환경

-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 석유·가스 시추 및 개발 확대
⇒ 친환경정책 후퇴

7

I -3). 정책 전환(피봇)

(통화정책) 정책금리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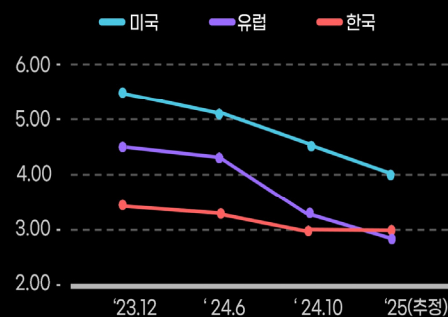
- '24년 하반기부터 주요국 금리 인하

(재정정책) 주요국 재정 건전화 필요

- COVID-19 극복 과정에서 재정 확대 정책 시행

(구조개혁) 경제 중장기 건전성 및 성장 동력 확보

[주요 국가 금리 추이]



한국 '25.1월 3.00% ~

미국 '24.12월 4.50% ~

유럽 '24.12월 3.15% ~

8

I -4). 갈등 증폭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과 갈등 속,
돌파구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체제 개편**”

경제적 갈등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관세전쟁
승자독식의 기술경쟁

사회적 갈등

정치 양극화
빈부격차 심화
세대간 갈등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차

지정학적 갈등

중동 분쟁
러·우 전쟁 지속

정책·시장간 갈등

과잉 유동성 VS 과잉부채

9

II.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

10

II -1). 중국의 급격한 추격

상호 보완관계 → 경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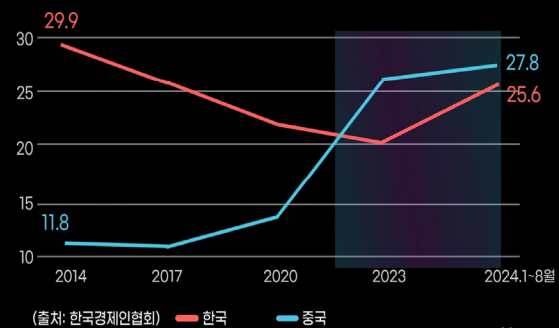
(과거) 한국 중국에 중간재 수출, 중국 미국에 완제품 수출

(현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경쟁관계, 중국 중간재 한국으로 역수입

중국, 한국 첨단산업 경쟁력 추월

- (메모리 반도체) 정부 지원으로 기술 추격
- (철강·석유화학) 과잉생산 제품 저가 수출
- (이차전지) 핵심원자재 독점
- (전기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시장 점유율 확대

[한중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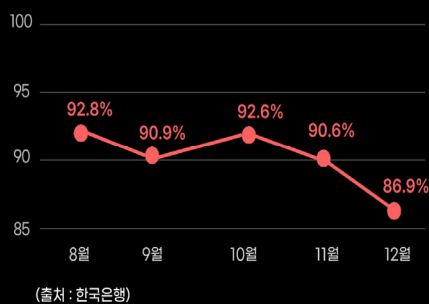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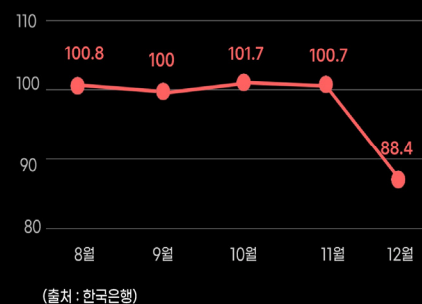
II -2). 국내 정치 불확실성 지속

비상계엄 등 정치적 혼란으로 성장 압박

[기업심리지수(CBSI)]



[소비자심리지수(CCSI)]



정치 불안 지속 시
국가 신용등급 하락, 국제사회 신인도 하락

12

II -3).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AI칩 등

핵심첨단 제품 수출제한

세계 각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시

수출 환경 악화

-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GDP 대비 35.7%)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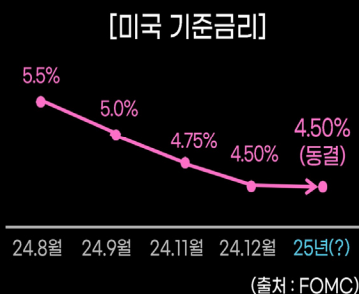


13

II -4). 환율변동 리스크 확대

관세정책, 이민정책 → 물가 상승 예상
(‘24.12월) 높은 고용지표와 낮은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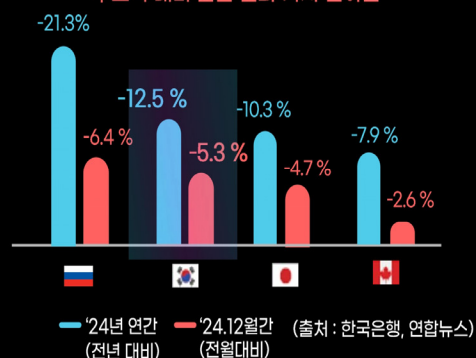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강달러 지속 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리스크 증대**

[달러화 대비 주요국 환율 변동률]

주요국 대비 높은 원화 가치 절하율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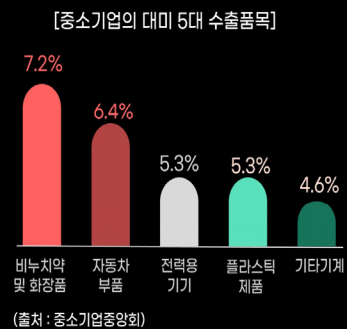
Ⅲ.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과 대응전략

15

Ⅲ-1). 수출 중소기업 영향

① 보편관세 적용 시 주요 품목의 미국 수출 감소

- ✓ **한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
→ **보편관세 부과 가능**
- (10~20% 부과 시) 대미 수출 119억~167억
달러 감소 전망 (산업연구원)
- ✓ **대미 수출 중소기업 수 :**
약 2만 2천개(전체 수출 中企의 24%)
- ✓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 상위품목 피해 우려**
- 수출 상위품목 : 자동차 부품, 전력용 기기, 플라스틱 제품 등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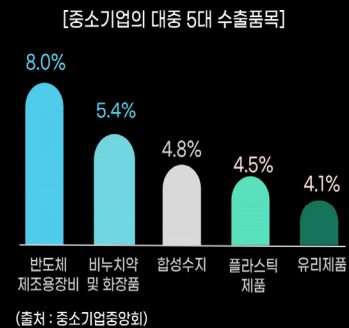
Ⅲ-1). 수출 중소기업 영향

②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시,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 **중국은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시장(16.9%)**

✓ **대중 수출 중소기업 수 :
약 2만 6천개(전체 수출 中企의 28%)**

✓ **중소기업 대중 수출품은 대부분 중간재**
- 수출 상위품목 : 반도체 장비, 합성수지 등



17

Ⅲ-1). 수출 중소기업 영향

③ 대중국 견제로 인한 한국 기업 반사이익은 미미할 것

✓ **미국 시장 내 한·중 경합관계는 제한적**

- 한·중 모두 10% 이상 점유율을 보이는 품목 수는 전체 중 2.8%에 불과

✓ **미국은 이미 주요국 대비
중국에게 높은 관세 부과 중**

- 경합에 의한 대체효과 보다 전체적 시장 축소로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

[미국의 對주요국 산업별 관세]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중국
음식료	0.0	3.8	22.9
화학	0.0	3.5	26.3
기계류	0.0	1.7	26.2
자동차	0.0	1.9	26.9
반도체	0.0	0.0	25.0

(출처 : 산업연구원)

18

Ⅲ-1). 수출 중소기업 영향

④ 미국이 아닌 제3국 내 韓·中 수출 경합 심화로 수출 감소

[한중의 對아세안 100대 수출품목 중 중복품목 수]
(단위 : 개)

구분	2020	2023
농림수산물	0	1
광산물	2	2
화공품	1	1
플라스틱	1	1
섬유류	4	4
생활용품	1	1
철강금속	4	6
기계류	6	9
전기전자	14	15
섬유류	32	40

(출처 : K-stats 한국)

19

✓ 중국이 대체시장을 찾는 과정에서
한·중 경합 발생 우려

-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 對아세안
수출 품목 100개 중 40개가 겹치는 상황

✓ 한국의 제3국에서의 수출 점유율
중국에 밀리는 형태

- 중국 점유율 (2010) 11.8% → (2022) 21.9% ⇒ 10.1%p 증가
- 한국 점유율 (2010) 2.7% → (2022) 3.4% ⇒ 0.7%p 증가

Ⅲ-2). 대응전략

① 미·중 수출 의존도 완화 필요

✓ 중국(19.5%), 미국(18.7%) 중심에서 탈피해 수출 시장 다변화

- 인도, 글로벌사우스(아프리카, 남미, 중앙아시아) 와 다자무역체제 검토
-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아세안 중 51.3%) 외 국가 수출 활성화

['24년 전체기업 주요 수출국]

(단위 : 억달러)

구분	국가명	수출액	비중
1	중국	1,330	19.5%
2	미국	1,278	18.7%
3	베트남	583	8.5%
4	홍콩	350	5.1%
5	대만	340	5.0%

['24년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단위 :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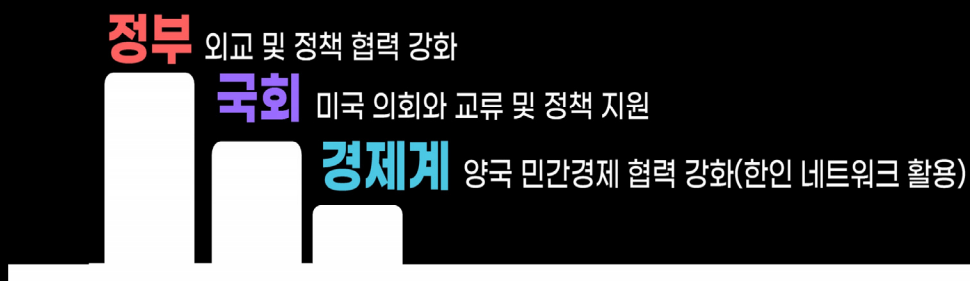
구분	국가명	수출액	비중
1	중국	199	16.9%
2	미국	192	16.3%
3	베트남	110	9.4%
4	일본	99	8.4%
5	홍콩	42	3.6%

20

III-2). 대응전략

② 정부·국회·경제계의 글로벌 원팀 협력 추진

- ✓ 개별 중소기업은 보호무역주의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음
- ✓ 정부, 국회, 경제계 모두 힘을 합쳐 미국과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



21

III-2). 대응전략

③ K-브랜드(K-뷰티, K-푸드 등) 수출 지원

- ✓ 소비물가상승을 고려해 소비재에는 관세 부과 자제할 것
- ✓ K-뷰티, K-푸드 중소기업 비중 높음
 - '24년 상반기 수출된 떡볶이의 60%, 냉동 김밥의 85%를 중소기업이 담당
 - K-뷰티,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기록, 이중 68%를 중소기업이 담당
 - 대기업 브랜드로 판매되는 제품도 중소기업이 OEM 생산한 경우가 많음

“K-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가 중요”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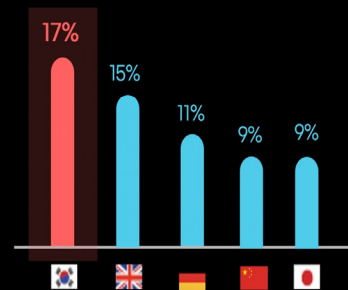
Ⅲ-2). 대응전략

④ 대·중소기업 미국 동반 진출 확대

✓ **한국은 미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최대 규모 국가**

- ('23년 상반기 기준) FDI로 창출된 총 일자리 18만개 중 한국이 3만개(17%)를 창출하며 최대 비중 차지

[미국 내 직접투자 창출 일자리 기여 비중]



(출처 : 미국 비영리 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 **미국 내 기 진출 기업과 中企 연결 확대를 통한 현지기업 납품 유도**

- 중소기업은 개별 기업 차원의 이전이 곤란하므로,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동반 진출 지원
- ('24.4월 기준) 미국 진출 한국 기업 사업장 수 : 2,432개

23

Ⅲ-2). 대응전략

⑤ 對중국 규제 대응을 위한 중국산 원자재 대체 방안 모색

✓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음**

- ('23년 기준) 對중국 중간재 수입 : 950억달러
- ⇒ 대중 전체 수입 중 64.5% 차지 (한국무역협회)

중국에서 원료 및
중간재 수입신항에서
가공 및 제조미국으로
최종재 수출✓ **중국산 품목에 대한 검토 및 대체 공급망 확보 지원**

-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원자재·가공품) 수입선 다변화
- 원자재 가공 기술 국산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공급망 내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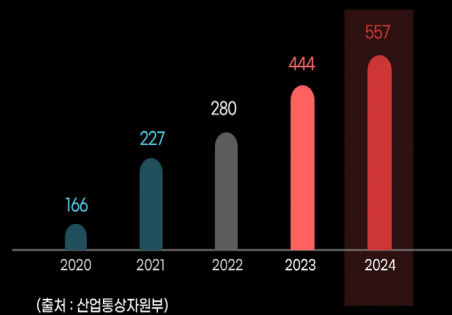
24

Ⅲ-2). 대응전략

⑥ 무역흑자규모 축소를 위한 대미 수입 증가 방안 모색

- ✓ '24년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557억 달러(8위)로 역대 최대 달성**
- ✓ **트럼프, 무역수지 균형 강조**
→ **대미 흑자폭 관리 필요**
- ✓ **미국산 에너지원과 농산물 수입 확대 검토**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품목 수입처 일부 미국으로 전환
 - 한국의 대미 농산물 무역적자폭 감소 추세
(’22년) 51억 달러 → (’24.9월) 34억 달러 적자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_중소중견기업

발제 2

트럼프 2.0시대의 중견기업 경영환경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트럼프 2.0시대의 중견기업 경영환경

20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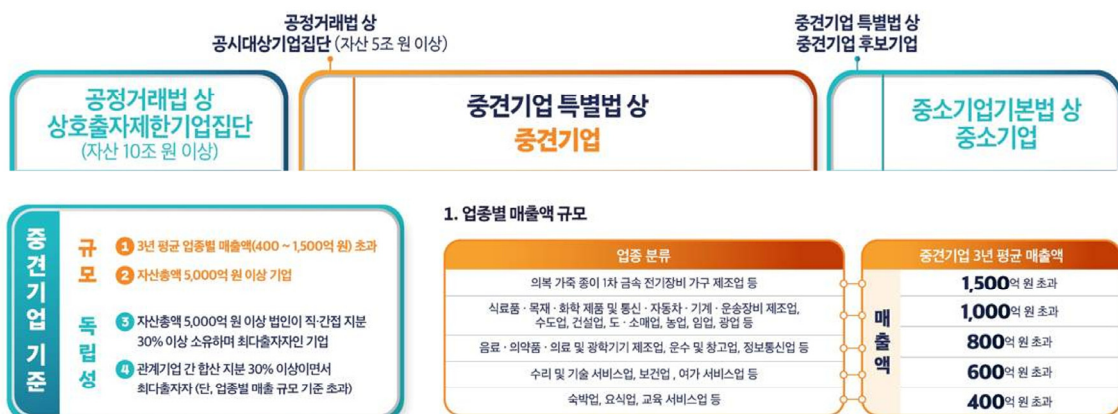
박양균

FOMEK

중견기업 범위 및 기준

0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FOMEK

중견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02

2,979 개 → 5,868 개

지난 10년 간 중견기업수 약 100% 증가, 수출·고용 등 견인



FOMEK

대한민국의 중견기업

03

산업 경쟁력 근간

전통 산업, 제약·바이오, ICT, 식품, 건설, 유통 등 제반 산업 발전 견인

제조 2,115 비제조 3,753

소재·부품·장비 부문 핵심

제조 중견기업 **84.8%** (1,793개)

기술 혁신 핵심

제조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규모 기업 당

평균 **88.6건**



청년 일자리의 요람

2023년 채용인원 28.5 만명 중

청년 **18.4**만명



글로벌 시장 선도 견인차

수출 중견기업 **2,205개**

해외 수출 제조 중견기업 비중 **73.2%** 해외 현지법인 **5,699개**

지역 동반 성장 주역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소득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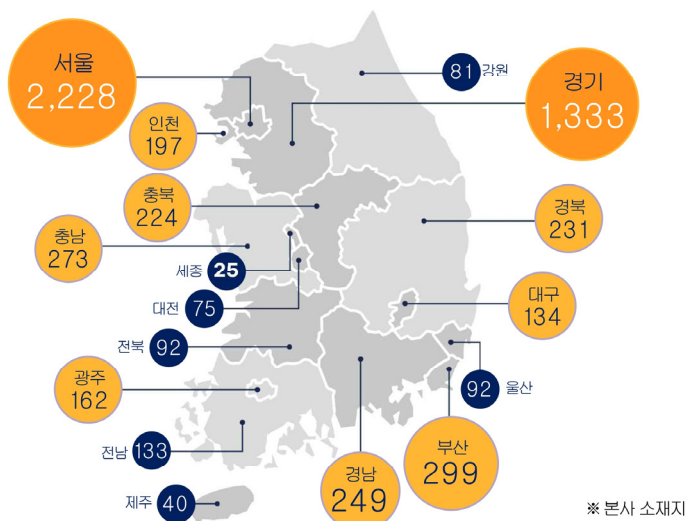
지방소재 중견기업 2,110개(36%)

수도권 기업은 3,758개

64.0%

지방기업은 2,110개

36.0%



전체 중견기업의 16.9%가 상장회사(코스피 446개, 코스닥 521개)



제약·바이오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삼천당제약



방산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휴니드테크놀로지



AI·반도체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유니테스트,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동진썬미켄, 와이씨, 하나미이크론, 이수페타시스



전기·전력

일진전기, 산화전기, 계양전기, 대양전기공업



철강·금속

동국산업, 풍산, 아주스틸, 대청



이차전지

신흥에스이씨, 한농화성, 코스모신소재



자동차

성우하이텍, 서연이화,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중견기업 주요 경영지표>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p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1.6	-0.1	11.1	12.1	-1.9
	총자산증가율	8.7	3.0	4.6	7.5	3.4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5.2	5.0	6.4	6.2	5.1
	매출액세전순이익률	4.5	4.3	7.1	5.9	5.1
	이자보상비율	371.5	376.4	618.2	540.4	322.6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53.0	51.7	52.8	53.0	53.8
	부채비율	88.6	93.3	89.5	88.7	85.7
	차입금의존도	16.7	17.8	16.7	17.0	16.5
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	13.9	13.9	15.1	15.4	13.4
	설비투자효율	51.9	53.7	60.9	64.3	56.6
	부가가치율	34.6	32.9	32.7	31.8	32.8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10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 100,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총자본) × 100

(총자본투자효율) = (부가가치/총자본) × 100, (설비투자효율) = (부가가치/(유형자산-건설중인 자산)) × 100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산출액) × 100

* (부가가치) 인건비 + 영업이익(영업손익+대손상각비-이자비용) + 세금과공과 + 감가상각비 + 이자비용
(산출액) 매출액 + 당기충제조비용 - 매출원가 - 외주가공비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마이너스로 전환

수익성

영업이익률 및 세전순이익률 전년대비 하락

안정성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전년대비 하락

생산성

부가가치율은 전년대비 상승했으나
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은 하락

2023년 평균 이자보상비율은 322.6이며, 100% 미만 중견기업은 32.1%개로 전년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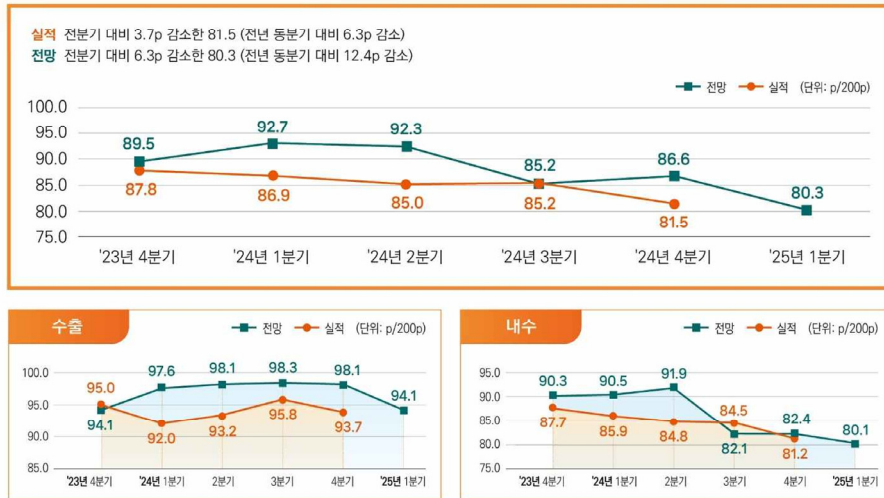
◆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금융비용부담률이 증가하면서 322.6으로 하락

-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중견기업 비중은 전년대비 0.5%p 증가하여 32.1%
- 영업적자 중견기업 비중도 전년대비 0.35%p 증가하여 23.1%이며, 3년 연속 영업적자 6.7%(271개사)

<중견기업 이자보상비율 및 구간별 비중>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p
이자보상비율	371.5	376.4	618.2	540.4	322.6
100% 미만	30.0	32.1	27.4	27.1	32.1
0% 미만(영업적자)	(21.7)	(25.3)	(21.9)	(19.6)	(23.1)
100~300% 미만	15.3	12.5	10.7	13.5	15.7
300~500% 미만	7.7	7.4	7.5	7.4	9.1
500% 이상	47.0	48.0	54.4	51.9	43.2

조사기간 2024년 11월 18일 ~ 12월 2일 (15일간)
표본규모 800개 (제조업 355개, 비제조업 455개)



(단위: p/200p)

	실적			전망		
	'24년 3분기	'24년 4분기	전분기 대비	'24년 4분기	'25년 1분기	전분기 대비

전체

	85.2	81.5	▼ 3.7	86.6	80.3	▼ 6.3
--	------	------	-------	------	------	-------

유형

일반중견

	86.0	81.5	▼ 4.5	87.9	80.7	▼ 7.2
--	------	------	-------	------	------	-------

피용자/관계기업

	79.3	81.9	▲ 2.6	76.7	77.7	▲ 1.0
--	------	------	-------	------	------	-------

제조업

	86.9	80.7	▼ 6.2	89.7	81.2	▼ 8.5
--	------	------	-------	------	------	-------

자동차·트레일러

	95.0	90.9	▼ 4.1	92.4	84.7	▼ 7.7
--	------	------	-------	------	------	-------

1차금속·금속가공

	72.2	64.8	▼ 7.4	71.1	61.7	▼ 9.4
--	------	------	-------	------	------	-------

전자부품, 통신장비

	92.8	73.2	▼ 19.6	105.7	84.1	▼ 21.6
--	------	------	--------	-------	------	--------

화학물질·제품, 석유

	78.5	74.6	▼ 3.9	87.3	74.4	▼ 12.9
--	------	------	-------	------	------	--------

식·음료품

	101.8	84.1	▼ 1.2	91.2	83.5	▼ 7.7
--	-------	------	-------	------	------	-------

기타 제조업

	84.7	83.5	▼ 1.2	91.3	86.2	▼ 5.1
--	------	------	-------	------	------	-------

업종

비제조업

	83.5	82.4	▼ 1.1	83.5	79.5	▼ 4.0
--	------	------	-------	------	------	-------

도·소매업

	80.0	78.2	▼ 1.8	79.2	79.2	▲ 0.0
--	------	------	-------	------	------	-------

출판, 통신, 정보서비스업

	83.1	79.7	▼ 3.4	83.2	83.1	▼ 0.1
--	------	------	-------	------	------	-------

부동산·임대업

	77.3	65.9	▼ 11.4	66.0	70.9	▲ 4.9
--	------	------	--------	------	------	-------

건설업

	60.3	71.0	▲ 10.7	71.8	69.9	▼ 1.9
--	------	------	--------	------	------	-------

운수업

	107.6	104.4	▼ 3.2	104.8	89.2	▼ 15.6
--	-------	-------	-------	-------	------	--------

기타 비제조업

	91.4	88.6	▼ 2.8	88.8	80.6	▼ 8.2
--	------	------	-------	------	------	-------

※ 주: 1100상 1009상-1109상 800미만

경기 부정적 이유



조사기간 2024년 11월 18일 ~ 12월 2일 (15일간)
표본규모 800개 (제조업 355개, 비제조업 455개)

2024년 4분기 기업경영상 애로요인 (복수응답)

(단위: %)



2024년 4분기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분야

(단위: %)



트럼프 2기 :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강화

통상정책

- 무역적자 개선, 제조업 보호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
 - (품목 관세) 무역적자 품목 쿼터제 시행 전망: 철강, 알루미늄 외 IT소비재, 가전, 자동차 등에 추가 적용 가능
 - (주요 적자국) 관세 인상 가능성 존재
 - (보편관세) 모든 수입품 10% 부과 언급
- 대중국 견제정책
 - (수출통제, 투자제한) 첨단반도체, AI 뿐만 아니라 우주, 바이오 등으로 확대
 - (수입제한) 60% 고율 관세 및 중국산 제품 수입 제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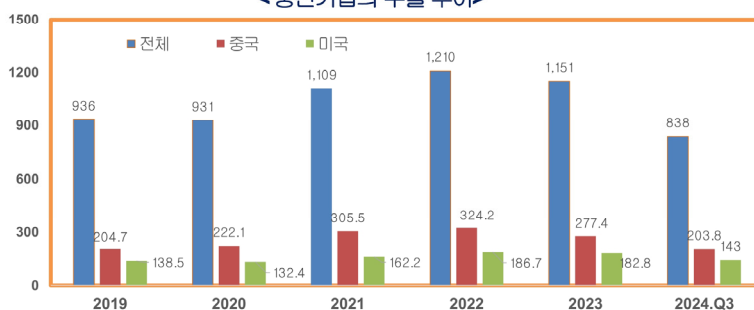
산업정책

- 자국우선 산업정책
 - CHIPS, IRA 축소 또는 폐지
- 공급망 정책 : 패널티를 통한 투자 유인 확대에 주력할 가능성 존재
- 미국산 구매 및 고용, 핵심 공급망 복귀

중견기업 수출은 '19년 936억달러에서 '23년 1,151억 달러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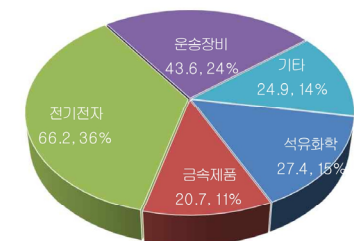
- 수출액 상위 국가는 **중국, 미국, 베트남** 순으로 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
* '24.Q3 국가별 수출액(억달러): 중국 203.8(24.3%), 미국 143.0(17.1%), 베트남 75.2(9.0%)
국가별 수출 중견기업 수: 중국 1,155개, 미국 1,029개, 베트남 810개
- 해외 현지법인 5,699개 중 중국 **1,494개**, 미국 **573개**

<중견기업의 수출 추이>



<중견기업의 미국 수출입 현황>

- 5년간 미국 수출 139억 → **183억달러** 증가했으며, 수입도 74억 → **78억달러**로 증가
- 주요 업종은 **전기전자, 운송장비, 석유화학, 금속제품**으로 전체 수출의 **86%** 차지



'23년 기준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총계	138.5	73.8	132.4	73.0	162.2	86.6	186.7	92.8	182.8	78.3
제조업	129.7	55.4	124.6	51.5	150.8	57.2	173.3	63.2	167.2	49.5
음식료품	2.4	11.7	3.1	12.1	3.6	16.3	3.5	20.0	4.5	11.0
섬유의복	1.1	1.9	1.3	0.9	1.5	0.7	0.6	0.5	0.6	0.6
목재종이	4.4	2.4	2.8	1.9	3.1	2.1	5.1	2.2	4.1	1.5
석유화학	30.0	11.4	29.0	10.4	34.0	9.9	31.4	8.9	27.4	8.7
금속제품	22.4	7.1	20.8	6.5	31.1	6.6	30.8	6.9	20.7	5.0
전기전자	37.2	13.8	38.1	12.5	44.1	15.3	61.6	17.4	66.2	13.9
운송장비	32.2	7.0	29.4	7.0	33.4	6.2	40.3	7.0	43.6	8.7
비제조업	8.8	18.5	7.8	21.6	11.4	29.4	13.4	29.6	15.6	28.8
건설업	1.3	0.5	0.6	0.4	0.5	0.5	0.9	0.3	0.8	0.6
도소매업	5.9	14.4	6.5	18.4	7.3	24.9	9.3	25.4	10.4	23.9
운수업	0.9	1.7	0.2	0.8	0.3	2.5	0.5	1.7	0.3	2.8
전문과학기술업	0.4	0.2	0.2	0.1	2.8	0.2	2.3	0.6	3.5	0.2
기타 비제조	0.4	1.6	0.2	1.9	0.6	1.4	0.5	1.5	0.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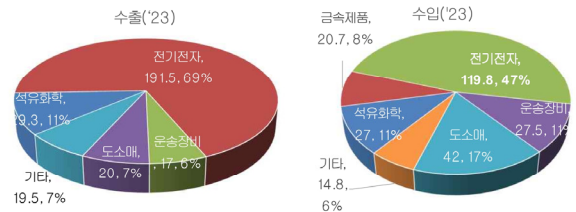
<업종별 중견기업의 중국 수출입 현황>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총계	204.7	182.3	222.1	178.7	305.5	243.2	324.2	268.1	277.4	251.8
제조업	184.7	129.3	193.8	126.9	269.0	187.0	299.9	215.4	253.0	204.0
음식료품	4.4	3.4	4.7	3.4	5.3	3.5	5.7	4.5	6.0	4.3
섬유의복	1.0	3.3	1.2	3.2	1.2	4.3	0.5	3.5	0.7	3.2
목재종이	1.8	1.8	1.7	1.7	2.2	1.9	2.8	2.4	1.1	1.6
석유화학	38.5	23.7	39.1	29.0	48.9	40.6	34.9	35.4	29.3	27.0
금속제품	12.3	23.7	14.6	17.7	17.3	30.7	12.1	25.6	7.3	20.7
전기전자	101.5	47.3	113.4	49.4	175.3	81.3	225.4	118.0	191.5	119.8
운송장비	25.1	26.1	19.3	22.5	18.8	24.7	18.6	26.1	17.0	27.5
비제조업	20.0	53.0	28.2	51.7	36.5	56.2	24.4	52.7	24.4	47.8
건설업	0.3	0.8	0.1	0.3	0.0	0.7	0.0	1.0	0.1	0.9
도소매업	15.6	32.8	24.4	34.8	31.8	46.7	20.1	43.9	20.0	42.0
운수업	3.0	15.4	2.0	13.9	3.3	5.7	3.6	4.4	3.6	1.8
정보통신업	0.2	2.0	0.3	1.5	0.6	1.1	0.1	1.4	0.1	1.0
전문과학기술업	0.7	0.5	0.7	0.1	0.3	0.9	0.2	0.6	0.2	1.1
기타비제조	0.2	1.5	0.7	1.0	0.4	1.2	0.2	1.5	0.3	1.0

◆ 5년간 중국 수출 205억 → **277억달러** 증가했으며, 수입도 182억 → 252억달러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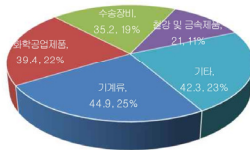
◆ 수출 주요업종은 **전기전자, 석유화학, 도소매, 운송장비**로 전체 수출의 **86%** 차지

◆ 수입 주요업종은 **전기전자, 도소매, 운송장비, 석유화학, 금속제품**으로 수입의 **94%**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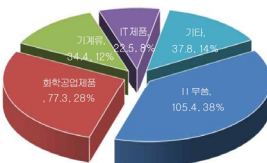
◆ 미국 수출 자본재 102.3억달러(56%), 원자재 67.1억달러(37%)

➢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운송장비, 철강 및 금속제품 순



◆ 중국 수출 자본재 170.5억달러(61%), 원자재 96억달러(35%)

➢ IT부품,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IT제품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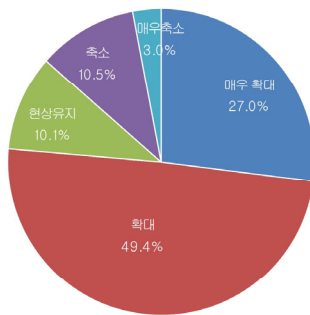


<재화성질별 중견기업의 수출입 현황>

		미국			중국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총계	총계	182.8	88.7	94.1	277.4	251.8	25.6
	소계	13.4	28.6	-15.4	10.9	23.7	-13.8
	직접소비재	7.0	27.2	-20.3	6.5	5.3	1.2
	내구소비재	2.6	0.2	2.4	1.0	7.7	-6.6
	비내구소비재	3.8	1.2	2.5	3.4	11.7	-8.4
원자재	소계	67.1	33.0	34.1	96.0	123.5	-27.5
	동식물성 연·원료	3.5	1.4	2.1	2.4	1.1	1.2
	석유류	1.9	0.5	1.4	1.6	6.5	-4.9
	광산물	1.2	1.3	-0.2	6.5	2.0	4.5
	철강 및 금속제품	21.0	17.5	3.6	8.2	26.2	-18.0
	화학공업제품	39.4	12.1	27.3	77.3	87.6	-10.3
자본재	기타 원자재	0.0	0.2	-0.2	0.0	0.0	0.0
	소계	102.3	27.0	75.3	170.5	103.5	66.9
	운송장비	35.2	3.5	31.7	8.1	8.5	-0.5
	기계류	44.9	8.2	36.7	34.4	17.5	17.0
	IT제품	13.6	7.0	6.5	22.5	37.6	-15.1
	IT부품	8.6	8.2	0.4	105.4	39.9	65.5

조사기간: '24.11.7~11.18
제조 중견기업 237개사 온라인조사

중견기업 76.4% 한국경제 불확실성 확대 전망



● 경제 불확실성 확대 요인

자국우선주의 강화(43.9%), 고강도 관세정책(35.9%),
대중국 견제 강화(13.3%)로 인한 한국 기업의 부담 증가

●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트럼프 주요 공약

관세정책(39.5%), 통상정책(32.3%), 산업정책(17.3%), 환경정책(7.4%) 순

● 정부 최우선 대응 과제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20.9%), 국내산업 보호 및 신 기회창출 정책 마련(17.3%),
환율변동 따른 실물경제 건전성 유지(16.7%), 핵심산업 공급망 다변화(14.8%),
통상마찰 대비 외교력 강화(14.63%), 신시장 개척(9.1%) 순

● 중견기업계 우선 대응책

환율변동 대응성 확보(31.7%), 수출시장 다변화(23.4%),
중국산 원부자재 공급처 다변화(20.4%), 미국 현지투자 확대(10.1%) 순

제약·바이오산업



- 원료의약품의 경우 중국, 인도 등 해외 의존도가 높아 환율 급등으로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 악화 우려
* 국내 자급도: '22년 11.9 '23년 25.6(식약처)
- 또한 소재부품장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의약품 제조원가 상승 및 영업이익 감소 예상
-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생산(CMO) 중견기업의 경우 사업기회가 확대되고 환율상승으로 인해 수혜 예상
- 원료의약품 및 소재부품장비 비용 상승으로 인해 실적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R&D 투자 위축

A사

- 고환율이 장기화됨에 따라 원료의약품 수입 비용 증가로 원가가 상승했으나, 비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실적 달성에 차질 예상되며, R&D 설비투자 등 사업계획 수정 불가피
- 개별기업 차원에서 환헤지 등으로 환율변동 대응에 한계 존재. 정부차원에서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을 위한 환율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화학산업



- 염료 등 화학물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료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수익성 악화 우려
- 화학 관련 업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사업재편 또는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해 협력 중견기업 경영 애로 증가

B사

- 직접수출은 미미하여 환율폭등에 대한 환차익은 거의 없는 반면, 화학물질 수입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 대부분의 주요 납품사가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격경쟁력 저하로 수출 축소 예상되며, 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가격에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어 협력 중견기업의 부담 증가

C사

- 고환율로 인해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나, 현재는 기존 재고물량을 통해 생산 중

자동차 산업



- 완성차 수출의 경우 환율상승은 영업이익에 긍정적이나 협력 중견기업의 경우 수입비용 부담 증가
- 고환율 장기화 지속될 경우 내수 위축이 우려되며, 부품 및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부담 발생
-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등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 축소 우려로 협력 중견기업의 부담 증가
-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멕시코에 투자 중견기업의 경우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피해 증가 예상

D사

- ✓ NAFTA 체결에 따라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15년 멕시코에 대기업과 동반진출 했으며, '23년 전기차용 하네스 공장을 신설하고 '24년 추가 증설 투자 진행
- ✓ 관세부과 및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 재협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멕시코 공장 존폐 위기

배터리산업



- 전기차 수요감소 및 중국산 제품과 경쟁 심화, 고환율 등으로 배터리 산업생태계 애로 가중
-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히토류 등 핵심광물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소재(음극재, 양극재)의 경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중국경제가 심화될 경우 심각한 타격 우려
- IRA 폐지 또는 축소,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로 인해 미국의 전기차 수요 감소 예상

F사

- ✓ 전기차 수요감소,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적자전환 예상
- ✓ 트럼프 2기의 자국우선주의 강화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R&D 및 시설투자 등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기계산업



- 보편관세 부과할 경우 수출 경쟁력 하락 우려
- 수출기업은 환율 급등으로 환차익 발생하고 있으나,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일부 상쇄
-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및 해외 투자 지연 우려

G사

- ✓ 환율 급등으로 수출에서 환차익이 발생하고,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이익이 상쇄되나 실적 개선
- ✓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고객사의 방문이 취소되고, 납품 이행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추가 발주 불확실성 지속되어 해외 수출에 차질

철강 및 비철금속



- 자동차 건설 등 수요부진 및 중국 공급과잉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 증가
- 여기에 미국의 무역적자 품목 관세부과 및 무역규제로 부담 가중

H사

- ✓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나, 인력 자원 의 한계로 인해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I사

- ✓ 고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어 유럽·인도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중
- ✓ 우리 기업들이 수출처를 다변화 할 수 있도록 신시장 개척 및 정책지원 필요

물류서비스



- 환율 급등으로 인해 원부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로 원가가 상승해 적자 전환
- 해외 시장 진출 추진 중이나, 환율 및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지연 및 보류

J사

- ✓ 환율 급등으로 원부자재 수입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당초 5% 영업이익을 목표로 했으나 적자 전환 우려
- ✓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멕시코에 투자 진행 중이나, 25% 관세부과 캐나다·미국·멕시코 무역협정 재협상 등 불확실성 확대에 의해 투자 보류
- ✓ 터기법인의 경우 환율 폭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불가

건설서비스



- 환율 급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환차익이 발생해 실적 개선
-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해외 수주에 차질 발생

K사

- ✓ 발주처와 협상 중 납기 지연 우려 등 신뢰성 문제 제기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음
- ✓ 국가신뢰도 하락으로 협상 중인 프로젝트의 계약체결이 지연 또는 무산되고 있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의 경우도 발주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01

경제 불확실성 해소

- 외환시장 안정화

02

주요산업 구조개편

-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지원 확대(R&D 및 투자 지원 확대),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지원 강화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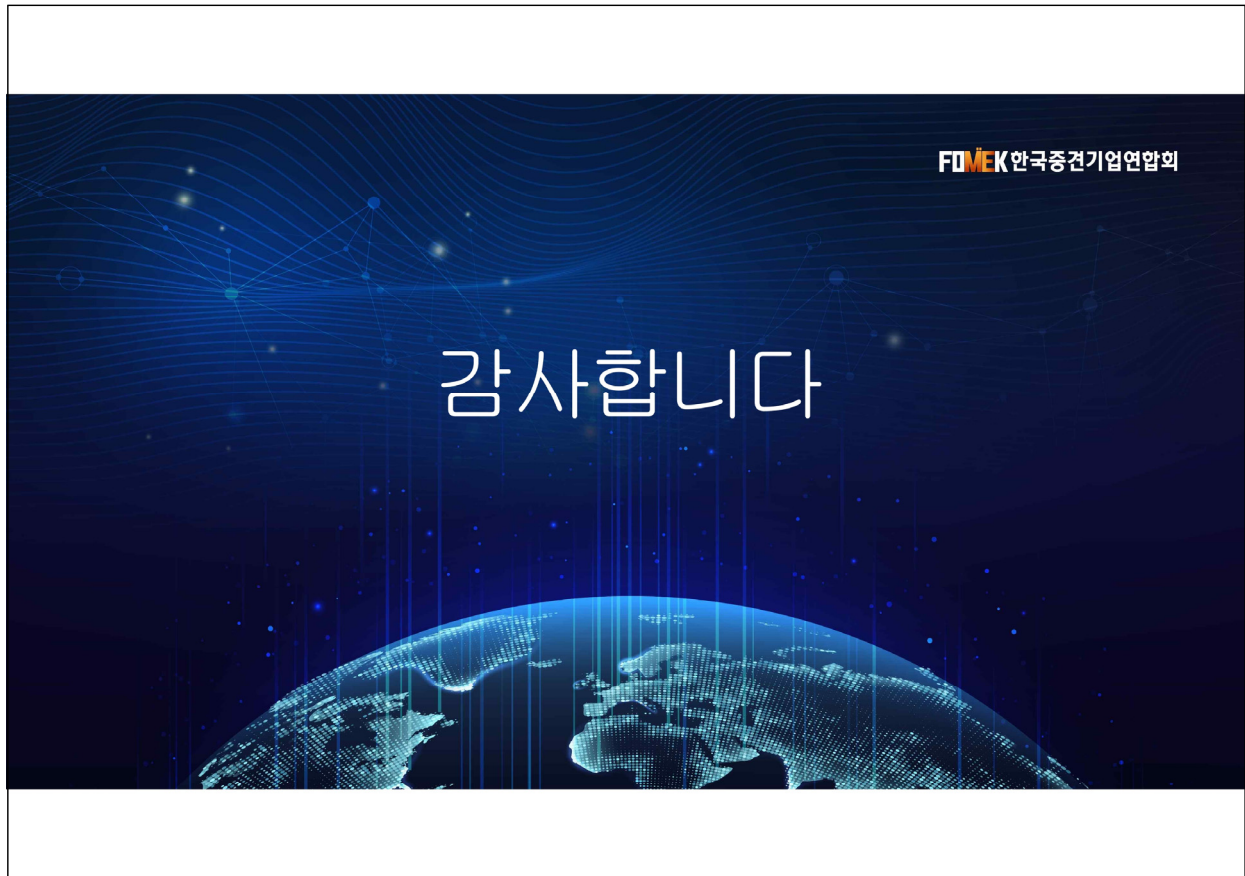
공급망 및 수출시장 다변화

- 핵심산업 원부자재 공급망 다변화,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04

금융지원 확대

- 무역 및 정책금융 지원 확대, 일시적 자금애로 기업 지원 확대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_중소중견기업

발제 3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트럼프 2기 정책과 전망

2025. 1. 24

임부영 연구위원

KOS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목 차

contents

- I 미 대선 결과와 인선
- II 트럼프 정책
- III 관련 주요 이슈
01. 3 이슈 02. 중소기업 영향
- IV 전망과 시사점



KOS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01. 대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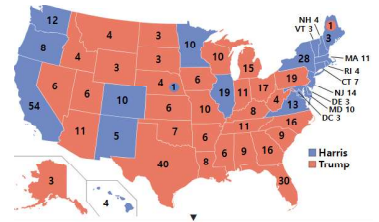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은 312명(58.0%)의 선거인단을 확보(7개 경합주 전승), '25. 1. 20일 제47대 美 대통령으로 취임

» 공화당의 상하원 승리, 강경노선의 부통령과 주요 부처 수장 인선 등을 고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은 1기 보다 더 강경하고 파급효과도 클 전망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특히 對中 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대외 충격에 취약한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더 큰 우려 존재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선거인단 42.0% 226명 58.0% 312명



02. 주요 인선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실	
비서실장	부비서실장	대변인	
수지 와일스	스티븐 밀러	캐롤라인 래빗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국방부
국가안보 보좌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국경경제 위원장	무역대표부 대표
마이클 월즈	윌렉스 쉘	케빈 해시	빈스 에일리
경제자문 위원장	환경 위원장	무역대표부 대표	경제자문 위원장
제이미스 그리어	스티븐 미란	스콧 프루잇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	스콧 베센트	피트 헤그세스	팜 론디	너그 버검
농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보건부 장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브룩 롤린스	하워드 러트닉	로리 차베스-디레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스콧 터너
교통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재무군인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숀 더피	크리스 라이트	린다 맥마흔	더그 콜린스	크리스티 누

01. 정책 - 공약



[무역통상]

보편관세(10~20%), 對中 고율관세(60%) 부과,
對中 무역재제 강화(최혜국대우 박탈, 우회 차단),
미 우선주의 및 수입규제 강화

➡ (韓) 수출의존도 높은 반도체 등 중간재 산업의
리스크 노출 우려



[경제·산업]

법인세 인하(21%→15%), Chip법, IRA 폐지/축소,
전통제조업 강화

➡ (韓) 주력 첨단산업(美 진출기업)에 대한 영향 불가피



[외교·국방]

러-우 전쟁 종전 주장, 이스라엘,
군사활동 지지, NATO 가입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 (韓)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북핵 억제
등 불확실성, 방산산업(-/+)



[기후에너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 탈탄소 정책(자동차 배출
량 감축, 전기차 의무화) 철회

➡ (韓) 친환경산업(-), 정유석유·화학
산업(+), 조선해양업(+)



[기타]

이민정책 강화, 첨단기술 규제
완화(AI, 암호화폐 등)

➡ 국내 스타트업·벤처 기업의 美 시장
진출(-/+)

5

02. 정책 - 46개 행정조치 서명 (행정명령 26건, 교서 12건, 선언 4건, 기타 4건) (1/21 기준)



[무역통상]

‘국외 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신설
무역협정 재검토(USMCA 등)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부과(2/1)
中 10% 관세 부과, EU 관세 부과 검토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경제·산업]

전기차 보조금 폐지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탈퇴 선언



[외교·국방]

극우 이스라엘 정착민 제재 취소



[기후에너지]

파리기후변화협정 재 탈퇴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석유·가스
시추 확대)
전기차 의무화 규정 폐지
에너지 효율 규정 폐지(가전제품)



[기타]

AI 안전규제 폐지
남부국경 비상사태 선포
출생 시민권 제한

6

01. 관세

■ 트럼프는 자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보편관세 부과 천명

- ▶ (상위 3대 무역국) 캐나다/멕시코 25%, 중국 60% 부과 예고
- ▶ (한국) 정도의 차有, 피하긴 쉽지 않은 상황*

* 對美 무역흑자 순위 12위(00) → 8위(23)로 상향

전체 및 중소기업의 對美 수출 증가, but 臺中 수출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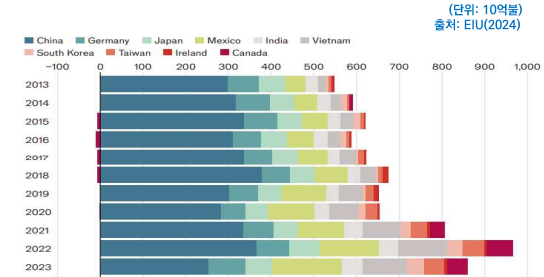
■ 보편관세 vs. 부분관세 → 점진적인 관세 정책 추진

- ▶ 트럼프 1기 관세 조치로 美 주식시장 하락, 2년간 기업 경영상황 악화(Reuters, 2024)
- ▶ 관세정책의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실효성에 의문 제기 등(전미 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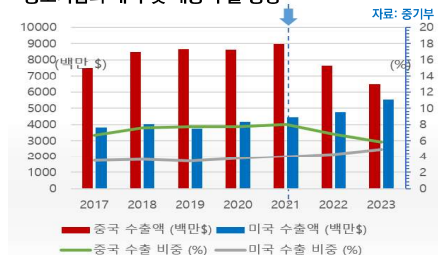
■ 관세 부과 효과

- ▶ 전체 (KIEP, 2024)
 - 보편관세 부과 시 총수출 222~448억 달러 감소, GDP 0.29~0.67% 감소
 - 중국 견제로 공급망 블록화 진행 시 후생 -1.37~0.30% 변화
- ▶ 중소기업 (KIET, 2024)
 - (중소기업 수출감소) 수출 12.6% 감소, 생산 파급효과 5.5조원
 - (대기업 수출감소) 수출 21.6% 감소, 생산 파급효과 9.2조원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지 적자



중소기업의 대미 및 대중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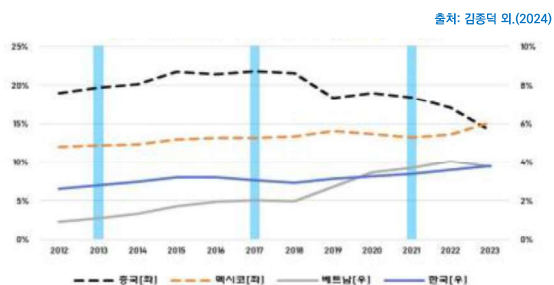


7

01. 중국

■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 기간 미 수입시장 내 주요 수입국 위상 변화

- ▶ 美 수입시장 내 중국 비중 하락
한국(3.1%→3.8%), 멕시코(13%→15%), 베트남(2.0%→3.8%) 등 비중 증가



■ 과잉 생산품목의 저가 밀어내기

- ▶ 對中 규제로 인한 中 과잉생산 물량의 국내, 아시아로 저가 유입
→ 경쟁 심화
* 특히 반도체,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등 주요 수출품목
- ▶ 中 내수부양책('24/12월)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국내의 경쟁 심화

■ 우회수출 가능성

- ▶ 멕시코, 베트남 등 니어쇼링 국가들에 대한 중국산 수입품 제재 가능성
* (멕시코) 올해부터 중국산 수입품 규제 언급
- ▶ FTA 체결국이자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님

8

01. 환율

■ 트럼프의 약달러 선호 vs. 강달러 유발성 정책

- 제조업 부흥, 무역수지 개선 필요성 vs.
美 36조 부채, 불법이민자 추방·보편관세 등
- Dollar 대안은 아직 無
* Dollar 패권에 대한 도전 용인 X: BRICs에 대해 100% 관세 경고

■ 주변국 환율 정책도 변수로 작용 : 中 위안화 절상, 日 금리 인상 가능성

■ 환율변동성 확대로 원자재 수입·투자기업의 부담 증가

- (전체) 환율 10% 상승 시 수출 0.31% 상승, 수입 1.79% 감소, 제조원가 2.98% 상승(무역협회, 2024)
- (중소기업) 환율 1% 상승 시 중소기업 영업이익의 0.36% 감소 (중기연, 2024)
- 중소기업은 환 헷지 관리역량 부족
* 중기중앙회 조사(304개사): 50% 미만이 전혀 환 관리가 안되고 있음

트럼프 1기 당선 전후 환율 추이

출처: 대신증권



최근 10년간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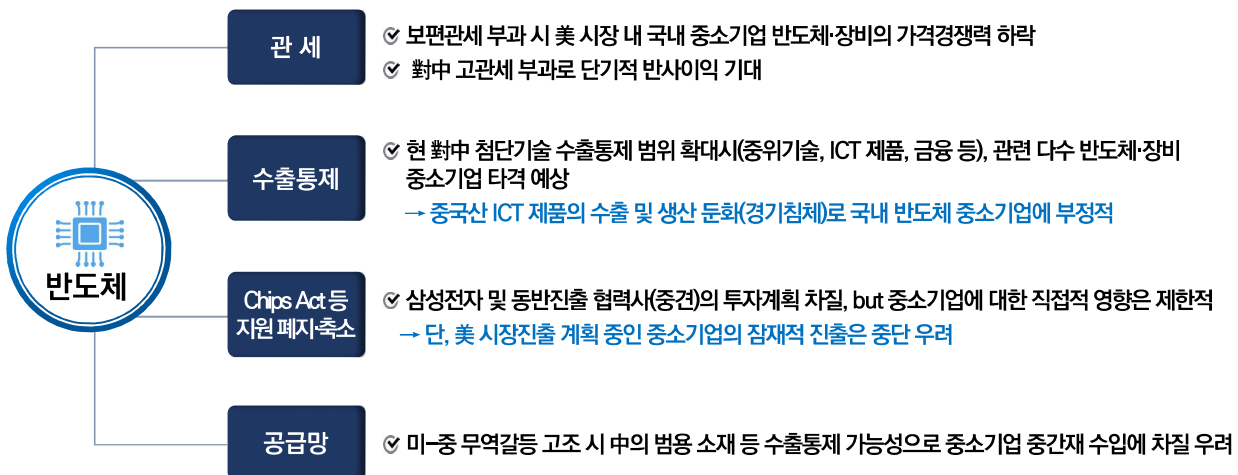
출처: 네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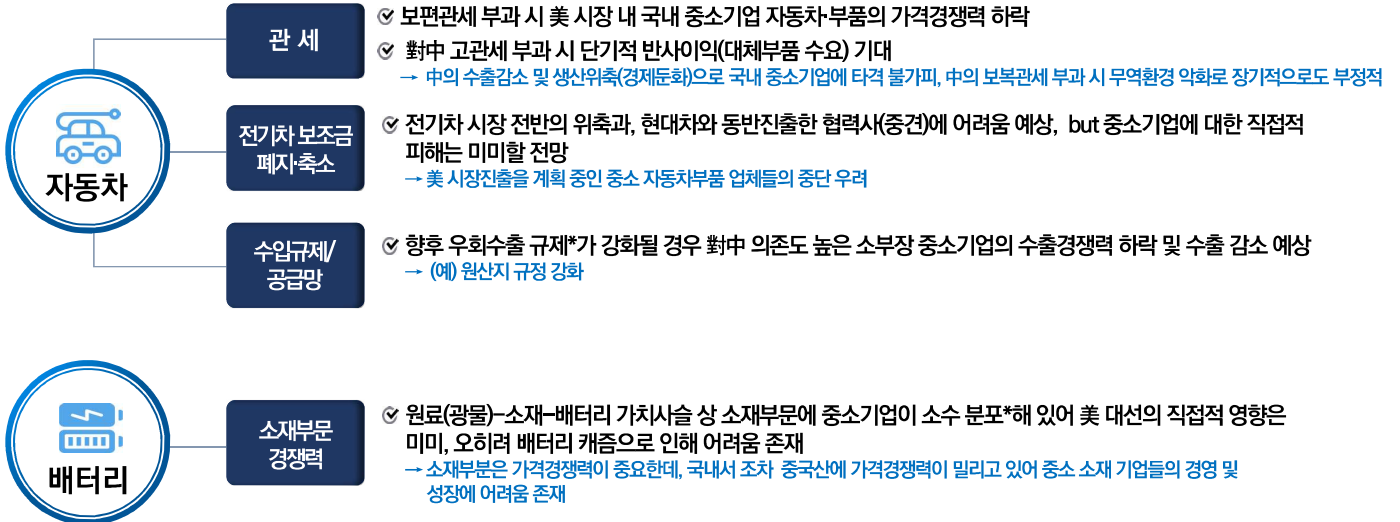
9

02. 중소기업 영향

(1) 주요업종 영향



02. 중소기업 영향



11

참고1. 중소기업 10대 수출품목의 수출액 및 증감율 (국가별)

» 중소기업 10대 수출품목 (미국, 중국) 수출액 및 증감율

자료: 중기부

2023 기준	수출액							증감율(20~23년)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	멕시코	EU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	멕시코	EU
화장품	1,120	913	577	385	36	11	290	-19.6	19.3	3.6	17.3	64	14.1	24.7
자동차	220	14	12	4	1	5	81	240.9	47.2	6.7	-38.7	25.2	340	77.8
플라스틱제품	895	871	287	666	106	144	549	-6.5	-1.5	-5.4	-2.2	12	14.2	-1.1
자동차부품	225	1,145	352	205	117	390	352	-12.6	-2.8	11.5	16	0	14.1	-4.9
반도체제조용장비	1,419	359	253	123	26	14	580	-6	1.5	6.6	22.7	42.2	90.1	45.3
합성수지	766	188	70	571	175	52	236	-9.2	24.3	5.3	2.5	25.9	16.5	24.8
반도체	511	82	78	518	57	14	61	-9.9	7.9	-5.7	20	25.8	37.5	5
전자응용기기	251	639	219	93	79	33	383	-1.9	48.2	-9.1	1.1	34.4	13.3	3.3
기타기계	618	851	145	278	83	111	419	-11.2	35.3	-7.6	-6.6	2.2	36.8	-0.9
기계요소	463	460	262	106	96	81	270	2.5	2.6	-2.5	0.6	14.3	14.5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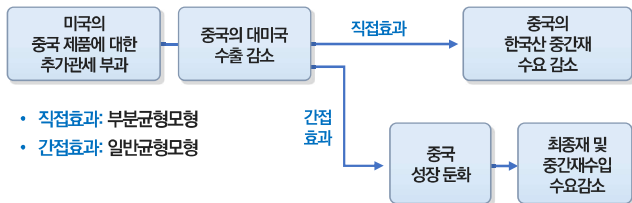
12

참고2. 미국의 對中 재제 → 생산 위축(경기둔화)로 인한 韓 중소기업 영향

» 엄부영(2018). 『미중 무역분쟁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파급경로

■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효과 파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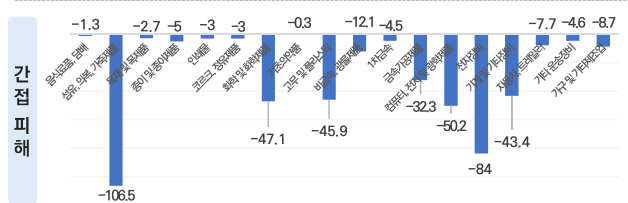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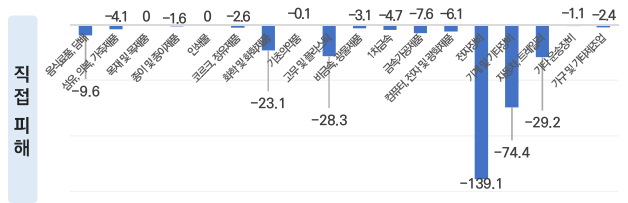
▣ 중국 경기둔화 영향은 직접효과<간접효과, 대기업(중소기업)으로 나타남

■ 對 중국 수출변화: 대기업 vs.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대기업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변화율	-0.73%	-1.14%	0.39%	-0.74%

수출변화

■ 중소기업의 산업별 對 중국 수출변화 (단위: 백만 불)



13

01. 전망

❖ 트럼프 2기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기

- 트럼프 임기 고려, 美 단기 내 성과 도출 vs. 재임 한계를 고려한 주변국의 적극적 대응

❖ 경제안보와 외교가 매우 중요한 시기

- 보편관세 부과 or 협상카드로 활용?
- 주변국 대응 역시 변수!

❖ 국익 관점에서 美-韓-中 관계 재정립이 중요한 시기

-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업종

❖ 최첨단기술 분야, 기회인 동시에 위협의 시기

- 美 정부 AI, 암호화폐 등 규제 완화 및 지원 활용, 對中 제재 등



14

02. 시사점

❖ 트럼프 취임 후 정책변화에 대한 철저한 Follow-up 및 대응

- '중소기업 통상협약체' 구축 및 의견수렴, 주요 조치들에 대한 적기 정보 제공

❖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 마련 및 전략 수립

- 시나리오별 피해 중소기업군 선별 및 대응(안), 수출지역 다변화(안) 마련
- 전향적인 통상 대응책 마련

❖ 실리적 관점에서 美-韓-中 관계 재정립

- 美 수출입 통제 시 韓 중소기업계 입장 고려(ex. 중간재 협력, 원자재 조달 등)

❖ 美 시장 진출 촉진방안 마련

- 美 기업과의 JV 등 스타트업 진출 지원, 스타트업 비자 추진

❖ 금리, 환율 등 금융 리스크 대응 및 지원



감사합니다.

발제 4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트럼프 2.0 대비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방안

1. 중소기업 고환율 대응 역량 강화

□ **(자금공급)** 고환율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입 기업에게 정책 금융 등 적극 지원

- 중소기업에 자금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기 공고 완료('24.12월) 및 신속 집행 추진

구분	긴급경영안정 자금·보증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수출바우처
중진공	2,500억원	4,000억원	1,275억원
기보	3,000억원	5,000억원	-

□ **(무역보험)** 수출바우처를 통한 환리스크 대응 지원

-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 지원 (한도 : 1천만원)

□ **(정책홍보)** 부처협업을 통해 전국단위 및 지역 설명회 개최

- 15개 수출지원센터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협업해 중소기업 환변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국 단위 설명회 개최, 홍보영상 누리집 게시*

* 설명회 관련 영상은 중기부·기업마당·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

- '25년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시 '수출파트'를 통해 별도 설명 및 환변동 리스크 현장상담을 지원

2.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수출국 다변화)** 품목별 유망 국가 발굴 및 특화 지원

-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 바우처 지원한도를 상향(20%)하여우대 지원하는 기업을 확대(182개사 → 250개사)

□ (해외진출) 정책자금 등 해외진출 지원 수단 강화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해 '25년부터 해외법인에 정책자금을 최초로 공급

-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추가 개소

* ('24.12) 인니 자카르타에 추가 개소, 14개국·21개소 운영 → ('25) 1개소 추가

3. 글로벌 동향·규제 정보 적기 제공

□ (수출규제) 해외 규제 변화에 대한 중소벤처기업 대응력 강화

- 해외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인증획득 비용 지원('25, 153억원)

- 수요가 많고 국내 대응이 가능한 인증 대상으로 월별 간이심사 등 신속한 인증 획득 지원 확대

* 패스트트랙: ('24) 유럽 CE, 美 FCC 등 7개 → ('25) 8개 (美 FDA 화장품 추가)

- 글로벌 할랄시장 ('25, 2.8조달러) 진출을 위해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수출 中企 인증 지원을 위한 연계 강화

* 한국무슬림연합(KMF) 등

- 중소기업의 부족한 수출규제 정보 확보 역량 보완을 위해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규제 대응역량 교육 확대(65회→80회)

□ (현지정보) 민·관 협력, 해외거점을 활용한 정보제공 지원체계 구축

-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협의체'를 통해 해외시장 동향 등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 민간 협·단체, 공공기관, 은행, 법무·회계법인 24개 기관으로 구성

- 중기부 해외지원 거점기관(GBC, KSC, KVIC)에서 해외 경제동향, 지원정보, 우수사례 등을 주기적 발굴·제공

1. 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美 대선 결과에 따라 기업애로와 정책수요 파악
- ☐ 조사기간 : '24. 11. 20 ~ 11. 27 (8일간)
- ☐ 조사대상 : 미국·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 3,000개사 (316개사 응답, 10.5%)

2. 조사 결과

- ☐ 미국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준비 및 긍·부정 인식
 - (준비수준) 트럼프 당선에 변화 대응 준비 23.7%, 준비없음 76.3%
 - (준비현황) 미국 외 타국가 바이어 발굴, 미국 신규 진출, 수출품목 변경 등 대응전략 마련 중
 - * 美 외 타국가 바이어 발굴 29.4% 美 신규 진출 15.8% 수출품목 변경 3.5% 기타 6.3%(인증 등) 순
 - (긍·부정인식) 긍정요인은 중국산 제품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수출증가, 부정요인은 관세부과로 인한 수출품 가격 경쟁력 하락이 높음

긍정요인	부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제품 규제, 반사이익으로 대미 수출증가 : 44.9% •친환경 규제 완화(기후합정탈퇴)로 수출규제 완화 : 8.9% •미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원자재 수출 증가 :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부과로 인한 수출품 가격경쟁력 하락 : 41.8% •환율 변동성 증가 : 15.5% •중국 견제로 인한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 제약 : 12.3%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의 비관세 장벽 심화 : 11.7%

☐ 정책 건의

- 무역관련 정보제공, 금융지원, 바이어 발굴·연결, 물류지원 順

정책주요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관세 및 무역 정책 관련 정보 제공 : 26.4% •환율 변동 관련 금융 지원 : 20.0% •미국 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연결 : 18.1% •타 국가 수출을 위한 바이어 발굴 :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 및 국제운송 지원 : 9.2% •수출 품목 개발 및 현지화 지원 : 5.2%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 3.3% •중국산 원부자재 대체 거래처 발굴 지원 : 2.8%

- * 추가건의 : 외국인 노동자 지원강화, 인건비 지원, 법인설립 지원, 컨설팅 지원, 물류·정책금융 등 수출지원 예산 확대, 온라인 수출지원 확대 등

참고2

트럼프 2기 주요 정책 행보 (1.22 기준)

- (美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은 美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美의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1.20, 현지시각)
- (정부조직 개편) 외국 관세부과를 위한 대외수입청(ERS), 연방정부 역량·효율성 회복을 위한 정부효율부(DOGE) 신설 등 발표(1.20, 현지시각)
- (국경·에너지)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불법입국을 차단하고, 파리기후 협약 탈퇴 및 석유 등 시추 확대(1.20, 현지시각)

* 남부 국경 군대 배치 및 서류없이 입국한 인원 등에 대해

- 트럼프는 파리기후 변화협정 재탈퇴를 포함하여 바이든 행정부 조치 78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각서 등 행정조치에 서명*

* [행정조치(1.21.오전)] : ▲정부 규제·고용 동결, ▲물가 대응,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정부 검열 금지 및 언론 자유 복구, ▲정적에 대한 정부 무기화 종료, ▲1.6사태 사면감형,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취소, ▲美연안 내 신규 원유·가스개발 금지→취소, ▲극우 이스라엘 정착민 제재→취소, ▲틱톡 금지법 시행→75일 유예, ▲무역협정 재검토, ▲WHO 탈퇴, ▲불법 체류자 자녀 美출생자주의 未적용, ▲美에너지 해방(저렴한 에너지 개발) 등

- (관세장벽)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중국에는 10%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조치가 21일부터 개시될 수 있음을 발언(1.20~21, 현지시각)

* 트럼프 취임 당일 기자문답을 통해 캐나다, 멕시코가 중점 관세 부과 검토 대상임을 언급
- 이주민과 마약(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우선 고려 중

- 보편관세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

- (신산업육성) 글로벌 기업* 간 AI 합작사를 통해 5,000억 달러(약 700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1.21, 현지시각)

*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 합작사 ‘스타게이트’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_중소중견기업

발제 5

김병욱

전 국회의원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